

광주, 에너지·수소산업 탄력...전남, 성장동력·기반시설 비중

문 대통령 취임 2년 / 광주·전남 공약 추진 현황

집권 3년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전남에 약속한 공약 사업이 전 정부에 비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복되거나 비중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조율을 거쳐 재조정할 방침이다.

◇**광주, 에너지·수소 등 미래먹거리 산업 탄력**-문재인 정부의 광주지역 세부 공약 사업은 모두 34개로, 5·18 관련 공약 3개 사업과 에너지산업 특별법 제정을 제외하면 국비가 투입되는 공약사업은 30개다. 이 중 올해 국비가 반영돼 신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거나 탄력을 받게 될 기존 사업은 14개로, 46%의 반영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광주지역 공약사업과 관련해 15개 사업에 1575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 중 14개 사업에 130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83%의 높은 반영율을 보였다.

일부 공약 사업들은 용역의뢰와 법령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현 정부의 광주지역 공약 반영 비율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특히 광주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고 있는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수소산업,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산업 거점화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올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광주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 사업도 올해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구축(121억원), 수소전기차 융합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16억원)도 올해 국비

■광주

30개 사업중 14개 국비 반영
AI 단지·문화전당 예산 확보

■전남

32개 사업 3~5년내 이행
해묵은 현안들도 속속 진행

를 확보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도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도 국비지원이 확대되면 서 향후 사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국비 536억원이, 5대 문화권 조성사업비도 국비 185억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광주역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올해 광주역 아시아문화 관련 조성 사업으로 국비 63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사업도 올해 사전타당성용역 조사비 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댔다.

하지만,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7대3 매칭 방식이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으로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류된다.

또한, 대선 공약이며, 광주시의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전장부품산업기반 조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은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남, 51개 공약 개별사업 중 8건 누락·일부 통합 또는 제외될 듯**-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전남에 약속한 사업은 11개 공약 31개 세부공약 51개 개별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부처 이행계획에 35건은 반영돼 추진중이며, 8건이 누락된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조율 대상은 이들 누락사업들이다.

51개 개별사업 가운데 전남에만 해당되는 것은 41개, 광주·전남 8개, 전남·전북 1개 등으로, 이 가운데 16개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전체의 62.7%에 해당하는 32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3~5년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개별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성장동력(19건)이었으며, 기반시설(13건), 관광휴양(12건), 농수산(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14건, 국토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처 이행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중 전남도가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은 ▲혁신공항과 연계 민간 소형항공기 운항 지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사업비 5040억원) ▲에너지산업단지 지정·개발(2560억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877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2020년 정부부처 예산안에 이들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한전공대 설립,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단선전철 건설, 화태-백야압해-화원 연도교 건설 등의 공약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늘 사회원로 12명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만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오찬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흥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과 환경부 장관으로 활동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무현 정

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들도 초청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원로들과 개혁과제를 비롯해 노동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할 예정인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에게 국정 운영의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허심탄화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눈부신 초록으로 지친 심신 달래볼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5) 초록

그토록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좋아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봄꽃보다 어린잎들의 연둣빛 초록이 더 마음에 간다. 나무, 아니 가지마다 돌아오는 어린 초록의 새잎들은 그저 색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의 매혹을 넘어 감탄의 극치다. 색채심리학에서 초록은 생명력의 회복과 소생, 진정을 상징하는 바, 봄빛 고운 초록의 향연 속에서 지친 일상을 위로받고 싶어질까.

오월 초록의 절정은 청보리밭에서 만



이숙자 작 '청맥-보릿밭 영경귀'

날 수 있다. 봄 소풍 삼아 다녀온 고향 청보리밭, 지평선 가득 펼쳐진 초록의 공기에 싸여 새 기운을 얻게 되니 갈라 데라피가 따로 없는 듯하다.

'보리밭' 하면 트레이드마크처럼 떠오르는 이숙자 화백(1942-)의 '청맥-보릿밭 영경귀'(2009년 작)는 꼭 이맘때의 청보리밭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오래 전 화백이 포천에 사는 막내 시동생을 찾아갔다가 짙은 초록색 별판을 만난 인연으로 몰입하기 시작한 초록빛 환영이었다.

오월의 하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을 청맥, 보리이삭과 섬세하게 표현된 보리알의 눈부신 푸른 빛, 바람도 정지된 듯한 고요함이 생명에 대한 외경심마저 들게 하는 순간이다. 그림 속 보리밭에서 함께 숨어있 듯 피어있는 보릿밭 영경귀도 정경이다.

이숙자 화백은 우리나라 채색화의 맥

을 잇고 있는 대표작가. 강인한 민족성, 희망의 대상으로서 그리기 시작했던 '보리밭' 시리즈와 '이브' 연작, '군우도' 연작과 '백두성산'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인 '한국성'에 대한 강한 열망과 저력을 보여 온 작가이기도 하다.

화백은 자신의 화집에서 "보리밭을 그리는 일은 도를 닦는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보리밭을 그리기 위해 보리밭을 한 알씩 밟고 수염을 한 줄씩 그으면서 가슴 속 응어리가 풀려나가 기도할 때처럼 편안함 속에 잠길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광주 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 박사>

내각·청와대 곳곳 포진...호남인맥 중용 약속은 '기대 이상'

4대 기관장 중 3명 2명 배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호남인맥 중용'은 취임 이후 2년 간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다.

우선 내각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차관급에도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을 필두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수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내각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에서도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인맥이 약진했다. 임종석 전 의원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맹활약한 것을 비롯,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조용우 국정기획비서관, 유승화 춘추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 호남 출신 청와대 행정관급도 4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4대 권력기관장에도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배치돼 있다. 군에서도 호남 인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전체 대장 8명 가운데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3명이 호남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142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40명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크게 늘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정책실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허경남 경기남부청장 등 정부 부처 각 요직에 호남 인맥들이 진출하면서 '허리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보수정권과 비교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호남 인맥 중용은 상진책해로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인사 중용'이라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간 오후 3시 ~ 6시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정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